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경식*

1. 들어가는 말

1516년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Erasmus)가 처음으로 그리스어 신약성서 인쇄본을 출판한 이후 오늘날까지 다양한 그리스어 신약성서들이 출판되었다.¹⁾ 이 가운데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로 학계와 교계의 인정을 받는 것이 흔히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판”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이다. 초판은 이미 117년 전에 출판되어 나왔다.²⁾ 독일의 성서학자인 에버하르트 네스틀레(Eberhard Nestle)의 이름을 따서 한때 “네스틀레판”이라고 불리던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이 1898년에 발행되었다. 에버하르트 네스틀레는 당시 권위 있는 세 권의 비평본³⁾을 비교하여 본문을 결정하였다. 세 비

* Westfälische Wilhelms Universität Münster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신약학 부교수. ksmin@yonsei.ac.kr.

- 1) 에라스무스 이후 20세기 네스틀레-알란트의 인쇄본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출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Kurt Aland and Barbara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legesellschaft, 1989), 13-30;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45-170을 보라. 또한 김창선,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비평본의 역사”, 『성경원문연구』 7 (2000), 100-116을 보라.
- 2) Eberhard Nestle, ed.,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s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scriptis collecto*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898).
- 3) 세 권의 비평본은 Konstantin von Tischendorf의 그리스어 신약성서(1969-1872년)와 Brooke Foss Westcott와 Fenton John Anthony Hort의 그리스어 신약성서(1881년)와 Richard Francis Weymouth의 그리스어 신약성서(1892년)이다. 3판(1901년)부터는 Weymouth의 신약성서 대신 Bernhard Weiß의 신약성서(1894-1900년)를 사용하였다. K. von Tischendorf, ed., *Novum Testamentum Graece. Ad Antiquos Testes Recensuit. Apparatum Criticum Multis Modis. Editio Octava Critica Maior* (Leipzig: J.C. Hinrichs, 1869-1872); B. F. Westcott and F. J. A. Hort, eds.,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1); R. F. Weymouth, ed., *The Resultant Greek Testament* (London: Elliot Stock, 1892); B. Weiß, ed., *Das Neue Testament. Textkritische Untersuchungen und Textherstellung* (Leipzig: Hinrichs, 1894-1900).

평본의 본문이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본문을 그대로 자신의 신약성서 본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세 비평본의 본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다수결로 본문을 결정하였다. 이때 선택되지 않은 독법을 본문비평장치에 실었다. 다소 비학문적인 방법이었으나 대단히 외교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결정한 그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이후 학계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가장 널리 인정받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에버하르트 네스틀레가 1913년에 죽자 그 다음해에 그의 아들 에르빈 네스틀레(Erwin Nestle)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책의 편집책임자가 되어 9판을 출판하였다. 그가 1927년에 출판한 13판부터는 체계적인 본문비평장치가 붙었으나, 오늘날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네스틀레판” 신약성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가 이 책의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면서, 본문비평장치가 대폭 확장되었다. 그는 그리스어 및 고대어(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등) 신약성서 사본들뿐 아니라 교부들의 성서인용문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본문비평장치의 내용을 수정하고 또 확장하였던 것이다. 그의 공로가 인정을 받으면서 25판(1963년)부터는 그의 이름을 따서 이 책을 “네스틀레-알란트”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26판(1979년)에서는 본문비평장치뿐 아니라 본문 자체도 새롭게 구성되었다.

그 후로 약 10여 년이 흐른 뒤에 27판이 나왔는데(1993년), 27판은 26판의 본문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본문비평장치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였고, 이것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27판은 8쇄까지 출판되어 나왔다. 여기서는 98개의 파피루스사본과 300개의 대문자사본이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 2012년 가을에 28판이 출판되었는데, 본문의 일부가 변경되었고, 본문비평장치는 대폭 개정되었다. <한국어서문판>은 두 번 나왔는데, 27판의 서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2010년)과 28판의 서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2014년)이다. 본 소고는 작년 가을에 출판된 <한국어서문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이 책의 공식적인 제목은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한국어서문판』인데, 27판과의 구분을 위해서 아래에서는 『NA28: 한국어서문판』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⁴⁾ 또한 독일성서공회에서 출판된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8. redivierte Auflage)은 NA28로 표기하도록 하겠다.⁵⁾

NA28은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첫째, 공동서신 부분에서 새로

4) 마찬가지로 <한국어서문판> 27판은 『NA27: 한국어서문판』으로 표기한다.

5) 마찬가지로 독일성서공회의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7판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8. Auflage)은 NA27로 표기한다.

운 본문이 채택되었다. 현재 독일 뮌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인 『대비평본』(*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이하 ECM)⁶⁾이 공동서신까지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서 변경된 본문이 NA28에 반영된 것이다. ECM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즉 공동서신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27판의 본문이 그대로 실렸다. 둘째, 전체적으로 본문비평장치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셋째, 종이형태뿐 아니라 디지털형태의 책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한국어서문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⁷⁾ 우선, 2장에서는 책의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 5장에서는 <한국어서문판>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다루겠다.

2. 형태

『NA28: 한국어서문판』의 전반적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표지에는 원어와 우리말로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라는 제목이 표시되어 있고, “한국어서문판”이라는 표시가 덧붙여 있다. 다만, 독일성서공회에서 출판된 NA28 원서에는 표지에 “28”이라는 숫자가 음각되어 있어서 이 책이 28판임을 알 수 있게 하였는데, <한국어서문판>에는 그러한 표시가 없어서, 27판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책 등에는 “28판”이라고 쓰여 있다.

책 표지를 넘기면 27판과 마찬가지로 먼저 지도가 두 장 나오는데, 왼쪽 면에는 구약시대의 팔레스타인, 오른쪽 면에는 신약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도이다. 판권표시와 책 제목이 다시 나온 뒤에 머리말이 나오는데, 1993년에

6) B. Aland, K. Aland, G. Mink, H. Strutwolf and K. Wachte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IV: Die katholischen Briefe, 2.* rediv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legesellschaft, 2014). 이 작업에 대한 소개로는 Babara Aland, “Die Editio critica maior des Neuen Testaments: Ihre Anlage, ihre Aufgabe, die neu entwickelten Methoden der Textkritik”, 『성경원문연구』 7 (2000), 7-23을 보라. 뒤이어 24-35쪽에는 우리말 번역이 나오므로, 우리말 독자들도 이 새로운 작업에 대해 쉽게 소개받을 수 있다. 1970년대에 시작된 프로젝트가 1997년 첫 열매를 맺었는데, <야고보서>가 처음으로 나왔고, 지금까지는 공관복음이 출판되어 나왔다. 현재는 <사도행전> 작업 중이다. 또한 심상범, “「그리스어 신약성서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이오」에 관한 고찰: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 (1998), 123-148을 보라.

7) 디지털 형태의 책은 아직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학계에 정식으로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쓰인 27판의 머리말은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와 바바라 알란트(Barbara Aland)가 작성한 반면에, 28판의 머리말은 현재 뮌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의 소장인 홀거 슈트루트볼프(Holger Strutwolf)가 작성하였다.

이러 목차가 나오는데, 이 목차를 보면 28판이 27판과 어떻게 다른지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서문(1*-70*)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어 신약성서 그리스어 본문(1-789쪽)이 나오는데, 이 본문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마지막에는 4개의 부록(791-886쪽)이 뒤따르는데, 이 4개의 부록의 제목은 27판과 비슷하나, 내용은 적지 않게 바뀌었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사본목록이 보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파피루스사본의 경우, 27판의 1쇄(1993년)에는 $\mathfrak{P}98$ 까지 등록되어 있다가, 8쇄(2001년)에 이르러 $\mathfrak{P}116$ 까지 등록되어 있던 데 비해, 28판(2012년)에는 $\mathfrak{P}127$ 까지 등록되어 있다.

서문은 이 비평본, 특히 28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이며,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을 최소한의 지면에 게재해야 하는 소책자의 한계 때문에 이 비평본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비평본을 출판하는 독일성서공회는 이 비평본의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매우 유용한 안내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⁸⁾ 이 안내서는 이 비평본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인 셈이다.

서문의 쪽 번호에는 아라비아 숫자 오른쪽 위에 별표가 어깨글씨로 붙어 있어서, 성서본문의 쪽 번호와 구분이 되도록 하였다. 서문에서는 비평본에 대한 소개와 비평본의 본문, 본문비평장치, 난외의 표시사항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이 이어지고, 소위 “유세비우스 캐논”이라고 하는 복음서 대조표가 나온다. 이 비평본에 대한 소개를 하는 데 27판이 8쪽 반을 할애한 반면, 28판은 10쪽 반을 할애하고 있다. 공동서신의 본문과 본문비평장치에 대한 설명(7*-11*)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본문이 나오는 면(1-789쪽)의 조판에는 근본적인 큰 변화는 없다. 면의 가장 위에 위치한 머리말 자리에는 27판과 마찬가지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차례로 장절표시와 책이름과 쪽수가 기입되어 있다. 면의 가운데에는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데, 바뀐 점은 글자체의 변화 정도이다. 27

8) D. Trobisch,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아직 영어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이 번역되면,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을 처음 접하는 신학도들뿐만 아니라 『NA28: 한국어서문판』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을 꺼리는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에서는 다소 세로로 길었던 그리스어 문자가 가로로 넓어졌다. 상대적으로 글자가 커져서 가독성이 좋아졌다. 그러나 자간 간격은 확연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줄에 더 많은 글자를 적을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야고보서 첫 장 첫 줄에 보면, 28판에는 27판보다 4글자(ταῖς)가 더 적혀있다. 띄어 쓰는 공란까지 계산하면 5글자이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줄들에도 28판에는 몇 글자씩 더 들어있다. 다른 예를 들면, 1장으로 구성된 빌레몬서의 경우, 27판은 44행으로 되어 있으나, 28판은 42행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그리스어 본문이 차지하는 지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어 성서본문과 비평장치가 차지하는 면은 680면(27판)에서 789면(28판)으로 늘어났다. 본문비평장치가 차지하는 지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바깥쪽 난외에는 여러 가지 성서구절이 적혀 있는데, 병행구절이라든지 구약인용구절 또는 관련 성구이다. 안쪽 난외에는 단락구분과 관련된 정보가 실려 있는데, 고대사본들에 사용되었던 장구분이거나 유세비우스 캐논이다. 그렇다면 28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독일성서공회에서는 28판의 달라진 점을 7가지로 소개한다.⁹⁾ 이것을 하나하나 소개하기 보다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두 가지에 초점 맞추어서 점검하는 것이 새로운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본문의 변경

NA28에서는 본문이 34군데 변경되었다.¹⁰⁾ NA28이 ECM의 본문을 받아들인 데 기인한다. 현재 ECM이 공동서신(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만 나왔기 때문에, NA28의 본문도

9) <http://www.nestle-aland.com/en/the-28-edition/revision-and-correction-of-the-whole-edition>을 보라. 이 7가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새로 발견된 파피루스 사본을 사본목록에 올렸다. 둘째, 소위 “일등급에 속하는 늘 인용되는 증거들”과 “이등급에 속하는 늘 인용되는 증거들” 사이의 구분을 폐기하였다. 셋째, 본문비평장치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넷째, 기존의 *pauci(pc)*나 *alii(al)* 등 본문비평장치에 있는 불분명한 기호를 없앴다. 다섯째, 기존에 *et*나 *sed*를 이용하여 이문단위를 연결한 것을 폐기하고, 각각의 이문단위를 독립적으로 표기하였다. 여섯째, 라틴어의 사용을 줄였다. 일곱째, 바깥 여백에 표기된 참조문헌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밖에도 트로비슈(David Trobisch)는 달라진 점을 11가지 지적한다. Trobisch,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48-54.

10) 우리말 서문(8*쪽)에는 33군데 본문이 변경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4군데 본문이 변경되었다. 우리말 서문에 실수로 언급되지 않은 변경된 본문은 베드로전서 2:25인데, 27판의 ἀλλά가 ἀλλ’이 되었다. 34군데 변경된 본문의 목록은 NA28의 서문(6*쪽 또는 50*-51*쪽)을 보라.

공동서신에서만 변경되었다. 공동서신 이외의 부분에서 NA28은 NA27의 본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아직 ECM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훗날 ECM 작업이 진척되면서 NA 후속판들의 본문 역시 점진적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서신에서 어디가 변경되었는가? 34군데 변경된 본문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문에 변경된 본문 리스트가 나온다.¹¹⁾ 그런데 서문에는 바뀐 본문과 이전의 본문(=27판의 본문)만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는 해당 본문을 직접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가장 최신판 ECM(즉 ECM2)을 보면, ECM1과 본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알 수 있다.¹²⁾

야고보서에 다섯 군데, 베드로전서에 아홉 군데, 베드로후서에 열 군데, 요한1서에 네 군데, 요한2서에 두 군데, 요한3서에 한 군데, 유다서에 세 군데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여기서 변경된 본문의 독법을 하나씩 하나씩 다 검토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야고보서 1:20에서 οὐκ ἐργάζεται 대신에 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가 28판의 본문으로 채택되었다. 놀라운 점은 새로 채택된 본문(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이 비잔틴 계열의 본문이라는 점이다. 흔히 우수한 사본으로 알려진 시내사본(κ)이나 바티칸사본(B)은 27판의 본문(οὐκ ἐργάζεται)을 지지한다. 이 밖에도 알렉산드리아사본(A) 등 몇몇 대문자사본(C, K, Ψ)과 몇몇 소문자사본(69, 81 등)도 이 독법을 지지한다. 반면 28판의 바뀐 본문(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을 지지하는 사본들은 우리가 흔히 우수한 사본군(群)으로 분류하는 그런 사본들이 아니다. 27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이 새로운 본문(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을 지지하는 사본들로 C*, P, 0246, 1739, **π**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외적판단기준에 따라서 이 이문단락을 판단한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27판의 본문(οὐκ ἐργάζεται)이 우세하다. 더군다나 26판과 27판의 본문결정을 설명하는 메츠

11) 『NA28: 한국어서문판』, 8*쪽에 변경 목록이 소개된다. 좌측 단에는 28판의 본문이, 우측 단에는 27판의 본문이 표시되어 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서문판>에는 베드로전서 2:25의 변경이 빠져 있다.

12) ECM, 17*-18*(독일어) 또는 35*-36*(영어): 여섯 군데 본문이 변경되었다(약 1:22; 벰진 5:9, 10; 벰후 2:11; 요일 1:7; 유 18). 사실 ECM2가 ECM1의 본문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개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섯 군데 본문이 불확실한 이문단락에서 본문의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약 1:22에서 ECM1은 μόνον ἀκροαταί를 본문으로 채택하였으나, ECM2에서는 μόνον ἀκροαταί와 ἀκροαταί μόνον을 둘 다 가능한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NA28에서는 어깨글씨로 쓰인 마름모 기호(◆)가 사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4. 본문비평장치의 개정”을 보라.

거(Bruce Metzger)의 본문주석¹³⁾이나 그것을 개정하고 보충한 오만슨(Roger Omanson)의 본문주석¹⁴⁾에는 이 구절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데, 이 사실은 이 구절의 본문이 본문비평적 관점에서 학계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28판에서는 본문 판단의 결과가 바뀌었다. 얼핏 훨씬 우수한 사본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οὐκ ἐργάζεται 대신에 주로 소문자사본들이 지지하는 οὐ κατεργάζεται가 최종본문으로 선택된 것이다. 28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27판의 본문비평장치보다 더 많은 소문자사본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C*, P, 307, 642, 1175, 1243, 1448, 1611, 1735, 1739, 1853, 2492^c, Byz이 이 새로운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로 소개되어 있다. 물론 ECM에는 훨씬 더 많은 사본이 이 새로운 본문을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¹⁵⁾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로 소문자사본들에 대한 본문비평적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¹⁶⁾ 후대의 소문자사본들은 후대의 본문을 반영한다는 것이 20세기까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막상 하나하나 검토해보니, 물리적으로 후대에 기록된 사본이 초기의 우수한 본문을 증거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한 것이다. 가령, 12세기나 13세기, 심지어는 14세기의 사본이라 할지라도 3세기 또는 4세기의 사본을 직접 필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초기의 독법이 후대의 사본에 그대로 살아남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중세에 유행하던 비잔틴계열의 본문이 2차적인 본문이라는 19세기말 이후의 지식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지식은 ECM 작업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며, 소문자사본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ECM은 지금까지 공동서신만이 출판되었다. 현재 가장 최신판은 개정2판(ECM2)이다. 이 연구작업에서 본문결정에 새로운 방법론이 적용되었는데, 흔히 CBGM(Coherence

13) 브루스 M. 메츠거, 『신약그리스어본문주석』, 제2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14) Roger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15) οὐκ ἐργάζεται에 대한 증거로 ECM에 제시된 사본들은 04*(=C*), 025(=P), 0246, 88, 206, 218, 322, 323, 398, 429, 614, 621, 629, 630, 808, 915, 918, 945, 1127, 1241, 1243, 1292, 1359, 1409, 1448, 1490, 1505, 1524, 1563, 1609, 1611, 1678, 1718, 1735, 1739, 1751, 1799, 1831, 1842, 1852, 1890, 2138, 2147, 2200, 2298, 2374, 2412, 2464, 2492Z, 2495, 2523, 2652, 2805, Byz이다. 야고보서의 Byz에 속하는 사본 목록은 ECM, Teil 2, 10쪽을 보라. 대문자사본, 소문자사본, 성구집을 포함하여 97개의 사본이 제시되어 있다.

16) 소문자사본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어서문 9*-10*쪽을 보라.

Based Genealogical Method)¹⁷⁾이라고 부른다. NA26(=NA27)에서는 소위 “lokal-genealogische Methode”(이하 IgM)가 본문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NA28의 공동서신 본문(=ECM) 결정에 사용된 CBGM은 이것을 더욱 발전시킨 개념이다.

IgM은 이문단위마다 이문들의 계보도(系譜圖, Stemma)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사본이 소위 “시작본문”(Ausgangstext)¹⁸⁾에 가까운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 방법의 한계는 사본의 전승 역사가 너무나도 복잡하여 사본의 계보도를 작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에 윈스터 신약성서본문연구소의 밍크(Mink)는 CBGM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은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모든 이문을 수집하여 컴퓨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CBGM은 불가능하였다. 우선 모든 사본의 모든 이문이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설령 모든 사본의 모든 이문이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였던 작업을 윈스터 연구팀에서 실현하였다. 물론 모든 사본의 계보도를 그리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 방법론은 사본들의 계보도를 그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IgM처럼 각 사본이 “시작본문”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그래서 그 사본이 본문비평적으로 어느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도 아

17) 이 방법론은 윈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Gerd Mink가 창안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이 방법론을 제기하였다. 초기의 논문으로는 G. Mink, “Eine umfassende Genealogie der neutestamentlichen Überlieferung”, *New Testament Studies* 39 (1993), 481-499를 보라. 그 이후에도 이 방법론은 계속적으로 진화되었다. G. Mink, “Was verändert sich in der Textkritik durch die Beachtung genealogischer Kohärenz?”, W. Weren and D. A. Koch, eds., *Recent Developments in Textual Criticism: New Testament, Early Christian and Jewish Literature*, Papers Read at a Noster Conference in Münster, January 4-6, 2001 (Assen: Van Gorcum, 2003), 39-68; G. Mink,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CBGM) as a Complement and Corrective to Existing Approaches”, K. Wachtel and M. W. Holmes eds., *The Textual Histo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Changing Views in Contemporary Research*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41-206.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발표된 여러 논문이 더 있다. 윈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 홈페이지(<http://egora.uni-muenster.de/intf/>)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

18) 전통적으로 사용된 “원문”(original text)이라는 용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최근 본문비평에서는 “시작본문”(Ausgangstex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작본문”은 현존하는 모든 신약성서 사본전승을 포괄하는 가설적 본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G. Mink, “Problems of a Highly Contaminated Tradition: the New Testament: Stemmata of Variants as a Source of a Genealogy for Witnesses”, P. van Reenen, A. den Hollander and M. van Mulken, eds., *Studies in Stemmatology II* (Amsterdam: John Benjamins, 2004), 26-27을 보라.

니다. CBGM은 모든 이문을 토대로 각 사본들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즉 어떤 한 사본이 무수히 많은 다른 사본들과 계보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후대의 사본이라고 해도 초기의 본문을 증거하는 사본들이 발견된 것이다. ECM은 이것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시작본문”을 추론한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거쳐 탄생한 ECM 본문이 공동서신만 나왔기 때문에, ECM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NA에서는 공동서신 부분만 본문이 변경된 것이다. 말하자면,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역사에서 공동서신 부분이 앞서있는 셈이다. 현재 사도행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도행전 ECM 프로젝트가 끝나면, NA 본문 역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NA28의 본문은 “과도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윈스터의 신약성서본문연구소의 장기계획대로라면 2032년에 ECM 작업이 끝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속도로 보건대, 2030년대 초반에 이 방대한 작업이 다 끝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¹⁹⁾ 어쨌든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30년대에 들어서야만 NA의 본문이 “과도본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본문비평장치의 개정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리스어 성서본문이 차지하는 지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본문과 비평장치가 차지하는 면수는 680쪽에서 789쪽으로 100여 쪽이나 늘어났다. 본문비평장치에 할애된 지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²⁰⁾

우선, 본문비평장치의 글자가 커지고 행간격도 넓어져서 보기 쉬워졌다. 그러나 본문비평장치가 늘어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28판은 27판에서 사용된 약어의 사용을 현격하게 줄였다. 베드로전서 1:1의 두 번째 이문 단락(Ἀσίας καὶ Βιθυνίας)을 보라. 27판에서 숫자로 표기된 이문의 독법은 28판에서는 단어로 표기되었다. “1 3”은 “Ἀσίας Βιθυνίας”로, 그리고 “2 3”은 “καὶ Βιθυνίας”로 풀어서 표기된 것이다. 또한 “καὶ Α. καὶ Β.”로 표기된 독법은 “καὶ Ἀσίας καὶ Βιθυνίας”으로 바뀌었다. 바로 아래 1: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7판에서 “3 2 1”로 표기되었던 것이 “ἀμαραντον καὶ ἀμιαντον”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공간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독자들이 본문비평장치를 해

19) 당초에 2008년에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NA28도 2012년에야 출판되었다.

20) 본문비평장치의 개정에 대해서는 한국어 서문 5*쪽 이하를 참조하라.

독하기는 훨씬 쉬워졌다.

그 밖의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마태복음 6:13 다음의 “주기도문 송영”은 원문에 속하는 본문이 아니다. 우리말 번역 성서에는 본문에 송영이 들어 있지만, 그리스어 원문에는 송영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본문비평장치에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그리스어 성서에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시오.”라는 구절로 끝난다. 그런데 많은 사본에는 이 구절 다음에 무엇인가가 덧붙여 있다. 이것을 표기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28판에서 본문비평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끝에 송영 없이 “아멘”(ἀμήν)만이 덧붙은 사본들이 있는데, 27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소문자사본 17과 *pc*라고만 증거로 제시된 반면에, 28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소문자사본 17뿐 아니라 소문자사본 30과 288*과 *vg*^{cl}이 “아멘”을 지지하는 사본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송영이 덧붙은 많은 사본이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되는데, 27판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의 송영을 가진 디다케를 본문독법을 증거하는 사본들 카테고리에 묶어서 처리한 반면에, 28판에서는 또 다른 이문을 증거하는 독법으로 취급하여 독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결과 비슷한 형태의 본문을 한 번 더 반복하여 기입함으로써 본문비평장치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요한1서 5:7-8은 “요한의 콤마”로 유명한 구절이다. 27판에서는 소문자사본 26의 독법을 다른 몇몇 그리스어 사본들(221^{vl}, 2308 등)과 하나로 묶어 처리한 반면에, 28판에서는 독자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이문이 본문비평장치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바로 아래 13절의 본문비평장치를 보더라도 28판의 본문비평장치가 대폭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독법들이 하나로 묶여서 처리된 반면에, 28판의 본문비평장치에서는 각각의 이문이 최대한 독자적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27판의 일부 잘못된 정보가 28판에서는 정정되었다. 고린도후서 11:3에서 베자사본(D)과 관련된 오류가 수정되었고, 또 야고보서 1:12에서는 $\text{¶}23$ 이 $\text{¶}74$ 로 정정되었다.²¹⁾ 물론 일부 이문들은 본문비평장치에서 제외되었고, 일부 이문들이 추가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증거들이 보충되기도 하였다. 주로 새로 “출판된” 파피루스 사본들의 독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집트 나일강 상류의 옥시링쿠

21) J. K. Elliott, “A New Edition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4 (2013), 48. 엘리엇은 이 외에도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스에서 발견되었으나,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은 신약사본들은 상당히 많다.²²⁾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출판될 때마다, 이 새로운 사본들이 본문비평장치는 물론 본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사도행전 10:34에 보면, 27판에는 “Ανοίξας δὲ Πέτρος τὸ στόμα”에 대한 이문이 없는데, 28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새로운 이문(αποκριθεις δε Πετρος)이 추가되었다. 새로 출판된 $\mathfrak{P}127$ 의 독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사본은 단지 “하나의 또 다른 고대 사본”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본은 소위 “서방본문”을 대표한다는 베자사본(D)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문유형” 또는 “서방본문”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²³⁾

NA28의 본문에는 27판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호가 발견된다. 마름모가 어깨글씨로 쓰인 기호(◆)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면, 유다서 17과 18에 각각 한 번씩 이 기호가 사용되었는데, 두 군데 모두 본문이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17절에서는 ῥημάτων τῶν προειρημένων이 본문인지 아니면 다른 독법 προειρημένων ῥημάτων이 본문인지 판단할 수 없고, 18절에서는 ἐπ’ ἐσχάτου 앞에 ὅτι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27판에서도 ὅτι가 꺾쇠괄호 안에 놓여있어서 이 본문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명시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28판의 공동서신 부분에서는 꺾쇠괄호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물론 공동서신 이외의 부분에서는 ◆가 사용되지 않고 27판에서처럼 꺾쇠괄호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NA28의 공동서신 부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문비평장치에 \mathfrak{m} 대신 Byz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동서신 이외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mathfrak{m} 이 사용된다. \mathfrak{m} 은 다수본문(Mehrheitstext, Majority text)을 의미하는데, 다수본문이란 통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은 사본들이 지지하는 독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mathfrak{m} 은 하나의 사본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본들을 가리키는 기호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는가? 특정한 독법을

22) 민경식,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의 가치와 전망”, 『성경원문연구』 22 (2008), 7-22.

23) $\mathfrak{P}127$ 은 사도행전의 일부 본문을 증거하는 5세기의 사본으로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되어, 현재 옥스퍼드의 새클러라이브러리(Sackler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이 파피루스사본의 에디티오 프린켄스는 D. C. Parker and S. R. Pickering, “P. Oxy. 4968: Acta Apolstolorum 10-12, 15-17”, D. Leith, D. C. Parker, S. R. Pickering, N. Gonis and M. Malouta, eds., *The Oxyrhynchus Papyri* 74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09), 1-45이며, 이에 대한 연구로는 Georg Gäbel, “The Text of $\mathfrak{P}127$ (P.Oxy. 4968)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Text of Codex Bezae”, *Novum Testamentum* 53 (2011), 107-152; Anthony J. Forte, “Observations on the 28th Revised Edition of Nestle-Aland’s Novum Testamentum Graece”, *Biblica* 94 (2013), 285-288을 보라.

지지하는 많은 사본을 하나하나 열거할 경우 오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서로 다르게 보도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열 명의 누리꾼들이 경향신문 기사를 트윗하였을 경우,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은 열한 군데 매체에서 발견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열한 가지 동일한 보도가 다른 보도들(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겨레의 보도)보다 사실에 가깝거나 이 사건을 보는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열 개의 보도가 하나의 기사(경향신문의 기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 필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4세기 이후 비잔틴계열의 본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대량의 사본들이 이 유형의 본문을 필사하였다. 특히 9세기 이후의 사본들은 거의 다 이 카테고리에 속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본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기호(ⲙ)로 표시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본들이 지지하는 독법(들)이 하나의 사본(군)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²⁴⁾

그렇다면 28판의 공동서신 부분에서는 왜 ⲙ 대신에 Byz를 사용하였는가? 이것은 ECM에서 기원하는데, ECM의 편집자들은 ⲙ보다 Byz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두 기호가 실질적으로는 비슷하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 ⲙ는 순전히 통계적으로 양적인 수치를 가리키는 용어인 반면에 Byz는 본문의 전송과정이나 본문의 역사와 관련된 용어이다. Byz에 속하는 사본들은 각 책마다 다르며, 구체적으로 어떤 책의 어떤 사본들이 Byz에 속하는지는 ECM에 분명하게 소개된다.²⁵⁾

여전히 바뀌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 마태복음 26:49-50에 걸쳐 ⲡ37의 독법에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다.²⁶⁾ ⲡ37의 필사자의 경우, 동일어미(Homoioteleuton)로 인해 첫 번째 εἶπεν(49절)과 두 번째 εἶπεν(50절) 사이에 있는 “χαῖρε, ῥαββί, καὶ κατεφίλησεν αὐτόν. ὁ δὲ Ἰησοῦς”를 빠뜨렸다. 첫 번째 εἶπεν을 베낀 다음에 눈을 다시 대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두 번째 εἶπεν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NA28의 본문비평장치는 혼란을 주는 NA27의 본문비평장치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NA27/28의 본문비평장치에 따르면, ⲡ37은 49절의 첫 번째 εἶπεν 다음

24) 비잔틴본문과 그 형성의 역사에 대해서는 K. Wachtel, *Der Byzantinische Text der Katholischen Briefe*, ANTT 2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를 보라.

25) ECM, Teil 2, 10-18.

26) 보다 자세한 설명은 Kyoung Shik Min,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3.-4. Jh.)*, ANTT 3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89: 민경식,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성경원문연구』 17 (2005), 214-215를 보라.

에 $\alpha\upsilon\tau\omega$ 를 삽입하였고, 50절의 두 번째 $\epsilon\acute{\iota}\pi\epsilon\nu$ 다음에 $\alpha\upsilon\tau\omega$ 를 생략한 것처럼 되어있다. 그래서 $\wp 37$ 이 다른 일부 사본들(C, sy^s, sa^{ms}, mae, bo 등)과 더불어 49절의 첫 번째 $\epsilon\acute{\iota}\pi\epsilon\nu$ 다음에 $\alpha\upsilon\tau\omega$ 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일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wp 37$ 은 결코 49절의 첫 번째 $\epsilon\acute{\iota}\pi\epsilon\nu$ 다음의 $\alpha\upsilon\tau\omega$ 를 지지하는 증거가 아니다. 다음 개정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주는 표기방식이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5. 한국어서문

2010년 3월에 출판된 『NA27: 한국어서문판』에 이어 2014년 8월에 『NA28: 한국어서문판』이 출판되었다. 그런데 이 2010년에 처음 출판된 <한국어서문판>의 준비 기간은 상당히 길었다.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와 같은 책이 기획되었다. 1989년 대한성서공회의 번역실장이었던 민영진은 독일성서공회를 방문하여 독일성서공회가 출판하는 학문용 성서를 우리말 성서와 묶어서 출판하는 길을 타진하였다. 즉 히브리어 구약성서(BHS)와 그리스어 신약성서(NA)를 우리말 번역과 함께 이중언어로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어-한국어 두 언어 편집이 논의되었는데, 그 형태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였다. 첫째, 한쪽 면에는 NA 그리스어 본문과 본문비평장치를 두고, 그 맞은쪽 면에는 한국어 번역과 본문비평장치의 한국어 번역을 넣는 것, 둘째, 한쪽 면에는 NA 그리스어 본문과 본문비평장치를 두고, 그 맞은쪽 면에는 한국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끼리의 비교를 편집해 넣는 것, 셋째, 한쪽 면에 그리스어 본문을 본문비평장치 없이 제시하고, 그 맞은쪽 면에는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방법이었다.²⁷⁾

6년 후인 1995년, 민영진은 독일성서공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 산하의 학술용성서위원회(COSE = Committee on Scholarly Editions)에 참석하여 “Needs for Scholarly Editions of the Bible in Asia”를 발표하면서, 이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때 대한성서공회가 가장 선호하던 형태는 왼쪽 면 위쪽에 그리스어 본문을, 같은 면 아래쪽에 본문비평장치를 넣고, 오른쪽 면 위쪽에 우리말 성서 『개역개정판』²⁸⁾을 기본 본문으로 넣고, 그 아래쪽

27) 이 과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민영진, “성서의 학문용 편집: 그 필요성과 편집 형태”, 『성경원문연구』 3 (1999), 16-17쪽에 보도된다. 위의 논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민영진의 개인적인 메모에서 가져왔다. 이후 민영진은 원문 대조 성서의 편집 시안을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 형태로 정리하였는데, 그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위의 글, 17-19 쪽을 보라.

28) 당시 『개역개정판』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상태였다. 1998년에 이르러서야 출판되었다.

에 다른 우리말 번역본들(『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과의 비교를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사실 서문만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넣은 지금 형태의 『NA28: 한국어서문판』은 처음 계획 하였던 모델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말 독자들을 위한 첫 단계 시도로는 커다란 공헌이 아닐 수 없다.

<한국어서문판>에는 굉장히 많은 역자주가 들어있다. 86개의 각주가 들어있는데, 원문 각주 18개를 제외하면 64개의 역자주가 들어있는 셈이다. 이 역자주는 서문의 설명에 대한 보충으로, 본문비평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말 독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각주 4번은 “읽기”에 대한 긴 설명인데(16줄), 흔히 “독법”(Lesart, reading)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가 본문비평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한다. 다만 “글밭”이라는 용어와 “읽기”라는 용어를 본문에서 섞어 씌으로써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주 5번은 본문비평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비평장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각주 14번은 *inscriptio*와 *subscriptio*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으며, 각주 48번은 “재생사본”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각주 50번은 다수본문(Ⅱ)에 대해 설명한다.

용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역자주들은 본문비평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전달해줌으로써 서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문비평의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각주 13번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각주 64번, 65번, 66번, 67번은 고대시리아역본인 페쉬타와 필록세노스의 시리아어 번역과 하르켈의 시리아어 번역과 큐레톤의 시리아어 번역에 대해 설명해준다.

예시적인 설명도 있다. 각주 28번은 “증거들의 본문에 상당히 큰 공백들이 있음”(서문 14*쪽)에 대해 알렉산드리아 사본(A)과 바티칸사본(B)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각주 39번은 “이문의 글밭은 일반적으로 충실한 형태로 제시된다.”(서문 18*쪽)는 것에 대해 마태복음 1:10과 누가복음 22:24를 예로 들어 풀이한다.

본문의 설명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각주 42번은 본문에 든 예문인 마태복음 14:24를 더 풀어서 설명하며, 추가로 마가복음 9:17의 경우를 덧붙여 설명한다. 각주 43번도 본문의 예인 마태복음 7:21과 24:48을 더 풀어서 설명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역자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27판의 서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28판의 서문에 빠진 내용을 각주로 설명

하기도 하는데, 각주 56번이 여기에 해당한다. 각주 2번과 3번과 8번과 61번 등은 본문에서 언급된 학자들이나 기타 인물에 대한 소개이며, 각주 9번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이렇듯 한국어서문은 본문비평이나 사본학, 또는 신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서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나가는 말: 한계와 전망

물론 한계도 있다. 우선, 소책자(Handausgabe) 형태의 작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한된 공간 안에 모든 이문을 소개할 수도 없으며, 해당이문에 대한 사본상의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약성서 본문과 이문, 또 사본들의 독법 등에 더 관심이 있는 독자는 ECM을 참조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28판 공동서신 부분의 변경된 본문에 대한 본문주석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34군데의 변경된 본문을 설명하는 본문비평 및 본문주석적 설명이 나와야 할 것이다.²⁹⁾ 26판/27판의 본문결정에 대해 소개하는 메츠거(B. M. Metzger)의 책³⁰⁾이나 오만슨(R. Omanson)의 책³¹⁾과 같은 본문주석이 곧 출판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새로운 본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새로운 방법론(CBGM)에 대한 소개도 이 책의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³²⁾

<한국어서문판>은 좁게는 한국신약학계, 넓게는 학계를 넘어 한국교계의 커다란 자산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 작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완성한 대한성서공회에 특별히 감사한다. 또한 이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을 앞장서서 준비한 대한성서공회 번역실과 서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김창락 교수의 공이 크다.³³⁾

29) Anthony J. Forte는 몇몇 구절에서 본문이 변경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변경된 본문 전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Anthony J. Forte, "Observations on the 28th Revised Edition of Nestle-Aland's Novum Testamentum Graece", 276-280.

30) 브루스 M. 메츠거, 『신약그리스어본문주석』.

31) Roger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32) Anthony J. Forte도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Anthony J. Forte, "Observations on the 28th Revised Edition of Nestle-Aland's Novum Testamentum Graece", 272-273.

33) 김창락 교수는 본문비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우리 신약학계에서 본문비평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학자이다. 이미 90년대 말부터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보급과 소

독일성서공회에서 출판하는 NA 신약성서에는 서문이 독일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서문판>은 이 서문을 우리말로 옮겨 넣은 형태이다. 독일어와 영어를 제외한 자국어 서문이 들어간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신약성서』는 <한국어서문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와 자량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러한 편집형태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 NA에 한국어서문을 덧붙인 과업을 발판 삼아, 대한성서공회의 첫 계획대로 우리말 성서들의 서로 다른 번역들(대본의 문제이든 번역의 문제이든)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보여주는 학술용 성서의 출현을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대비평본, 본문의 변경, 본문비평장치의 개정, CBGM.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Editio Critica Maior, Textual Changes, Revision of the Apparatus, CBGM.

(투고 일자: 2015년 2월 6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19일)

개에 열정을 기울였다. 김창락,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7판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 (1998), 26-122; 김창락, “「NA²⁷」 야고보서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성경원문연구』 4 (1999), 35-49를 보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창락,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7판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 (1998), 26-122.
- 김창락, “「NA²⁷」 야고보서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성경원문연구』 4 (1999), 35-49.
- 김창선,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비평본의 역사”, 『성경원문연구』 7 (2000), 100-116.
- 메츠거, B. M., 『신약그리스어본문주석』 제2판,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 민경식,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성경원문연구』 17 (2005), 210-226.
- 민경식,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의 가치와 전망”, 『성경원문연구』 22 (2008), 7-22.
-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민영진, “성서의 학문용 편집: 그 필요성과 편집 형태”, 『성경원문연구』 3 (1999), 7-19.
- 심상범, “「그리스어 신약성서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이오」에 관한 고찰: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 (1998), 123-148.
- Aland, B., “Die Editio Critica Maior des Neuen Testaments: Ihre Anlage, Ihre Aufgabe, die Neu Entwickelten Methoden der Textkritik”, 『성경원문연구』 7 (2000), 7-23.
- Aland, B., Aland, K., Mink, G., Strutwolf, H., Wachtel, K.,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IV: Die katholischen Briefe*, 2. redivi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legesellschaft, 2014.
- Aland, K.,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legesellschaft, 1989.
- Elliott, J. K., “A New Edition of Nestle-Aland, Greek New Testament”,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4 (2013), 47-65.
- Forte, A. J., “Observations on the 28th Revised Edition of Nestle-Aland’s *Novum Testamentum Graece*”, *Biblica* 94 (2013), 268-292.
- Gäbel, G., “The Text of \mathfrak{P}^{127} (P. Oxy. 4968)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Text of Codex Bezae”, *Novum Testamentum* 53 (2011), 107-152.
- Min, K. S.,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3.-4. Jh.)*, ANTT 3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 Mink, G., “Eine Umfassende Genealogie der Neutestamentlichen Überlieferung”, *New Testament Studies* 39 (1993), 481-499.
- Mink, G., “Was Verändert Sich in der Textkritik durch die Beachtung

- Genealogischer Kohärenz?“, *Recent Developments in Textual Criticism: New Testament, Early Christian and Jewish Literature*, Papers Read at a Noster Conference in Münster, January 4-6, 2001, W. Weren, D. A. Koch, eds., Assen: Van Gorcum, 2003, 39-68.
- Mink, G., “Problems of a Highly Contaminated Tradition: the New Testament: Stemmata of Variants as a Source of a Genealogy for Witnesses”, *Studies in Stemmatology II*, P. van Reenen, A. den Hollander, M. van Mulken eds., Amsterdam: John Benjamins, 2004, 13-85.
- Mink, G., “Contamination, Coherence, and Coincidence in Textual Transmission: the 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CBGM) as a Complement and Corrective to Existing Approaches”, *The Textual Histo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Changing Views in Contemporary Research*, K. Wachtel, M. W. Holmes, ed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41-206.
- Nestle, E.,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scriptis collecto*,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898.
- Omanson, R.,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Parker, D. C., Pickering, S. R., “P. Oxy. 4968: Acta Apolstolorum 10-12, 15-17”, *The Oxyrhynchus Papyri*, 74, D. Leith, D. C. Parker, S. R. Pickering, N. Gonis, M. Malouta, eds.,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09, 1-45.
- Tischendorf K. von, *Novum Testamentum Graece. Ad Antiquos Testes Recensuit. Apparatum Criticum Multis Modis. Editio Octava Critica Maior*, Leipzig: J. C. Hinrichs, 1869-1872.
- Trobisch, D.,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legesellschaft, 2013.
- Wachtel, K., *Der Byzantinische Text der Katholischen Briefe*, ANTT 2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 Weiß, B., *Das Neue Testament: Textkritische Untersuchungen und Textherstellung*, Leipzig: Hinrichs, 1894-1900.
- Westcott, B. F., Hort, F. J. A.,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1.
- Weymouth, R. F., *The Resultant Greek Testament*, London: Elliot Stock, 1892.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Edition with Korean Foreword

Kyoung-Shik Mi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 critical review on the recently published Korean version of a Greek New Testament,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with Korean Foreword*, 28th ed. (Seoul: Korean Bible Society, 2014).

It's aim, however, is not to go into a detailed criticism of theories which were applied to the 28th edition of NTG, nor to simply introduce the textual and text-critical changes of this volume.

It not only describes the overall physical features of this volume, but also tries to explain why the text is changed and what kind of new methodology(CBGM) is applied which brought about some textual chang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is new methodology gave us not only new textual decisions, but also new insight into the history of textual transmission. CBGM opened a new possibility to evaluate Greek minuscules which were text-critically devaluated and neglected so far.

This paper also explains the reasons and results of the revision of the text-critical apparatus: Why this is changed and what kind of advantages it gained as a necessary consequence. It also tries to point out a misleading notation system of the apparatus.

In addition, this paper chases the history of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NTG form the late 20th century to today. It examines some 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tion in the Korean version.

Finally this paper makes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advancement of this Korean version of NTG, and of Korean New Testament scholarship as well.